

# 제주사회복지신문

>2015년 2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88호

## 사랑나눔 푸드마켓 온정의 손길 '훈훈'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연말에 이어 연초에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년간 각계에서 식품나눔에 동참한 결과 물품기부 693건 2억5695만원, 현금기부가 35건 349만원으로 전년대비 8%가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연말 나눔에 동참한 제주상공회의소 청년부(회장 안성)는 쌀 25포(250kg)를 푸드마켓에 전달하며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안성 회장은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 식품 나눔을 실천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22일에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지구 삼다라이온스클럽(회장 고세봉)은 푸드마켓이



▲아래어린이집(왼쪽), 삼다라이온스클럽(오른쪽 위), (주시와월드(오른쪽 아래)가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후원했으며, 농협여성단체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과 농가주부모임에서 쌀 7kg 24포를 기탁했다. 또한 소담제주영농조합법인(대

표 김미순)은 '식품기부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조합에서 생산

된 약 400만원 상당의 채소류 124박스를 기탁했다. 소담제주는 앞으로 협의

회가 운영하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제주 지역 식품기부문화 활성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강경화)소속 흥운경로당(회장 김석진)에서 어려

운 이웃들을 위해 써 달라며 자원봉사활동분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상금 50만원을 후원했으며, 아래어린이집(원장 이승희)은 '함께해서 행복해요' 전시회 수익금으로 55만원 상당의 간장을 후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밖에도 (주시와월드(대표 우영진)은 제돌이 감귤 초콜릿 200세트와 함께 "다가오는 설 명절에 이웃들을 위한 물품구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며 '2014제주나눔대축제' 참여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221천원도 기부했다.

이 외에도 많은 소액 기부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훈훈함을 더해 주고 있다.

☞ <1월 식품기탁자 2면>

**작년 2억6044만원 전년대비 8% 증가  
매월 기업체, 단체 등 기부식품 나눔동참**

### 2015년 제주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개최



새해를 맞아 제주도내 사회복지인의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 달 7일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삼다수홀에서 '2015년 을미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도지사, 구성지 도의회의장,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해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사회복지시설·단체장 및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사회복지인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제주지역 사회복지 발전을 기원했다.

또한 지난 50여 년간 대

한국 농아인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다 지난 해 9월 별세하신故 오원국 이사장(사회복지법인 농애원)에게 제주 사회복지 공헌패를, 2015년도 '사회복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등재자인 한경찬 이사장(사단법인 동려)에 대한 기념패를 전달됐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홈닥터는? | 법률복지서비스 제공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입니다.

### 서민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주치의가 되겠습니다.

www.moj.go.kr



####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서민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2014년 현재 전국 40곳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 활동 중입니다.

#### 대상은?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 방법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법률상담·법교육 등 일정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 제주사회복지시설·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에서 신청서 작성  
- 전화상담 :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064)702-3782

####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 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 법률 전반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1. 법률상담 3. 법률구조기관 등 연계  
2. 소송 절차 안내 4. 법문화 출장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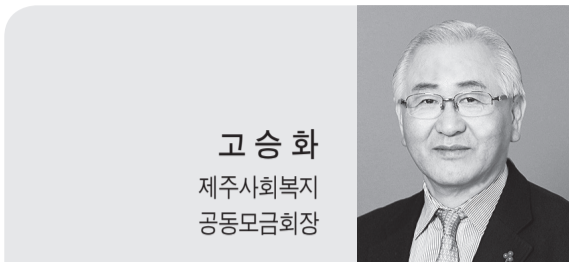
### 위급하기 전에 미리 U119안심콜에 정보 등록하세요!



- 대상자 : 전국민(제약대상 無)
- 신청방법 : 인터넷에서 신청
- 홈페이지 : http://U119.nema.go.kr
- 신청인 :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서비스개시점 : 신청후 즉시 서비스 이용가능
- 문의 : 서부소방서(현장대응과) 795-0171



사회복지직능단체장 신년사 ②



**고 승 화**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장

**나눔과 복지가  
넘실대는 희망의 한 해**

민간 복지 발전을 염원하며 201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어 보곤 합니다. 지난 한해도 우리에게 많은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계속된 경제 불황의 여파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밑바탕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일을 위한 희망 그리고 이웃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새해에도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여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해와 전진의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금회는 도민여러분들과 함께, 뜨거운 가슴으로 낮은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면서 현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나눔과 복지를 통해 희망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임말시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회장

**포기하지 않는 희망과 꿈  
도전하여 소원성취 하는 해**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제주사회복지신문을 통해 신년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주의 사회복지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해에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소리없이 자신의 일들을 하였기에 우리 제주도 사회복지가 좀 더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협회도 설립된 지 올해도 3주년이 되는 해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법인의 대변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제주도 사회복지발전에 실질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확립하며, 제주도 사회복지의 미래를 담보하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계가 힘을 합쳐 선진복지사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쓰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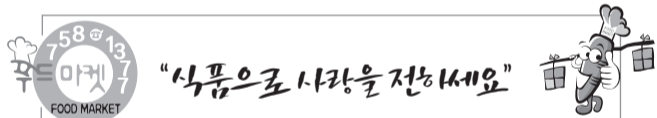
**임 태 봉**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장

**긴밀한 공조와 연대로  
'복지가 융성하는 해'가 되길**

사회복지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6기 출범이래, 지금 우리제주는 변화에 대한 도민적 갈망으로 일시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 그리고 복지는 도민, 국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적을 추구합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사회복지사로서 복지를 실천함에 윤리강령으로써 다짐한 바 있지 않으십니까? 각 분야에서 전문가적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계시는 여러분! 이 사회는 속출하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분야마다 복지가 확산되고 있고, 그로인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사회복지전문가'로서 도정과 의정에도 지대한 관심은 물론, 인접분야와의 활발한 교류와 상호 호혜적 관계형성을 주도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2015년 '복지가 융성하는 해'로써 어느 해보다 긴밀한 공조와 연대를 이루어 우리 모두의 동반성장과 상생에 대한 희망을 품고 싶습니다.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가 여러분과 함께 도민의 행복을 꾀하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1월 식품기탁자

- ▲개인기탁자=과일 60kg ▲금강수산유통=훈제오리 16kg ▲금강축산유통=돈반골 240kg ▲김치원=김치 40kg ▲꽃비나리는뜨락=떡 258개 ▲덴마크우유=우유 20팩 ▲동원F&B제주=냉동만두 등 부식류 4275개 ▲삼다유통=삼다수(2L×6)300팩 ▲서문식품=두부 519모 ▲아라어린이집=간장 150개 ▲이든이네=멸치 9kg ▲자연드림이도점=빵 147봉 ▲제성상회=햄 11kg ▲제주보리촌=보리빵 600개 ▲주민복지과=쌀 200kg ▲시와월드=초콜릿 200세트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654봉 ▲행복나눔마트=세제 90kg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 수립 추진**

오는 15일까지 전수조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인천지역 어린이집의 아동폭행 사건발생과 관련하여 관내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제주시는 부모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 확대, CCTV 설치를 권장하고,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강화 및 보육교직원의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연 2회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방법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어 서귀포시에서는 경찰청

에서 아동학대 근절 집중 추진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 합동점검반과 함께 오는 15일까지 관내 134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피해실태 파악 및 시설 운영상황과 자체교육 실시 여부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보육교직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복돋기 위해 2월 중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 외에도 학부모가 함께하는 모니터링단 적극 운영,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과 민원제보 등에 따른 수시 점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을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등에 힘쓰므로써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행복한' 보육환경 기반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SN **도사회복지협의회  
인사 발령 알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2015년 1월 1일자로 인사를 단행했다.

- ▲신임 상근부회장 = 고경운 상근부회장
- ▲직위승진 = 김성건 사무국장  
김현미 나눔사업팀 팀장
- ▲신규채용 = 황이삭 지역사회봉사단 담당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경운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사회복지협의회 2014년 12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1,560,000	5,680,00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6,055,000	5,135,000
복지사업후원	995,000	2,643,680
푸드마켓후원	2,664,900	214,18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직능단체장 신년사 ② - 아동복지분야 · 여성복지분야 · 지역복지분야 · 정신보건복지분야

황 의 식

전국지역아동센터  
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정(情)이 있는  
사회복지 실천의 해가 되길

사회복지가족여러분! 새해 문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길’ 길은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그게 길이 됩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볼 수 있다면 누구나 가야할 방향을 잃지 않고 자유로움을 누릴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어찌면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길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 체온은 온도계로 잴 수 있지만 마음의 온도는 온도계로 잴 수 없습니다. 단지 상대방의 말과 행동, 눈빛 그리고 손길을 통해 정을 느끼면서 마음의 온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정은 마음의 온도계가 아닐까요?

정이 가득한 사회복지의 서비스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누구에게나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 눈보라 속에서도 또 다른 희망을 갖게 만들어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인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모두에게 정을 나누며 행복한 도민사회를 만들어가는 희망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염 순 정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장



사회 기대와 믿음  
부응하는 한 해 만들어야

양의 해를 맞이하여 지난 일들을 돌아보니,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세월호 사고 등 ‘다사다난’으로 표현하기 힘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내 가슴에 사랑이 있으면 세상은 아름답게 보이며, 잔잔한 기쁨이 솟아납니다. 올미년은 무엇보다도 가정과 여성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소망해보며, 양은 무리를 지어 질서를 유지하며 목표한 길을 쉽게 중단하지 않고 걸어간다고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임직원과 사회복지인 모두가 역량을 결집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건강한 ‘평화의 섬’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양처럼 느린 걸음이지만 쉬지 않고 간다면 ‘무소의 뿔’처럼 사회의 기대와 믿음에 부응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일선에서 저희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가 사소한 갈등과 마찰이 서로에게 봉합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지 않도록 우리의 역할 또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 흥 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협회



올미년 사회복지관  
도약을 준비하며

제주지역에서 사회복지관은 20년 이상의 오래된 역사와 함께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반을 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상자 중심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요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정증가, 초고령화, 이주정착민증가 등과 같은 복지환경변화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민간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공공연히 인정하고 인정받으면서도 이것이 공식적으로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올미년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관 보조금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연계협력을 통한 사회복지관사업 활성화, 직원 역량강화, 섬지역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사업 효율화 등 전문적이고 특화된 사업들을 개발해 진취적인 사회복지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 길에 관협회가 앞장서서 활동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김 성 속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협회장



부모 마음으로  
아동들에게 사랑줘야

제주에는 다섯 개의 아동복지 시설이 있고 그곳에선 삼백 명이 넘는 아동들이 어린 새싹을 틔우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사회적 다변화에 따른 복지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 가장점에 아동복지가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노인복지 등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부모의 사랑과 근원적 울타리인 가정을 잃은 아동들을 보살피는 일은 세상의 기초를 쌓는 일만큼 어렵고도 소중한 일이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주어야 그 나라의 미래가 밝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 현장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이 시간에도 부모의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으며 그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어린 나무들이 북풍한설을 이겨내고 몇천년 푸르른 큰 나무로 커가는 울창한 숲을 상상해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잔잔한 미소가 번질 것입니다. 올미년 새해에 더 많은 사랑을 짓고 모두에게 축복의 한해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고 은 택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활센터협회장



행복한 복지제주  
같이 만들어 갔으면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소 느리지만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것이 목표한 바를 더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복지제주를 만드는 일 역시 우리 모두 손잡고 같이 만들어 갈 때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자활사업은 수급자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 역시 복지제주 건설의 당사자로서 주변의 동료 이웃들과 소통 연대하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정이 내세운 민관협력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현실화 시켜야 할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 놓고 도민의 복지증진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며, 이렇게 할 때만이 사회복지제도 도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새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는 희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 정 해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제주지회장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느끼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올미년 청양(靑羊)의 해가 밝았습니다. 양은 화목하고 평화로운 동물로 사회성이 뛰어나 공동체 생활로 융합이 잘 되기에 더욱 새해의 희망을 갖게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정신장애인은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나아지지 않아 그 당사자들이 겪어할 고통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사회와 단절돼 나갔으며, 이는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지회에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알기에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가며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해가 되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 사회구성원 한 사람 한사람이 함께 공생하며 지역사회와의 사람살이를 통해 ‘사람다움 사회다움’이 느껴지는 우리 제주가 되도록 지역사회 및 우리 지회가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여성장애인 5명 1년여간 직접 스토리·그림 제작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 동화책 펴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성인장애인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지원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

화책을 출간했다.(사진) 이 책은 '동화로 만나는 세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장애인 5명이 지난해 1년 여간 직접 스토리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등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창작동화다. 제작에 참여한 양은선 씨는 "누구나 어릴 때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이들이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 자신의 존재를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강윤미 씨는 "미숙한 습작낙서를 다듬고 그림을 완성시켜 책이 되기까지 곁에서

항상 용기를 북돋아주시며 마음을 다해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고마움을 표한다"며 "글을 쓰고 그림을 완성해 가면서 지금의 내 또래였을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상기하며 어머니와 나를 치유했던 시간들이 참 소중하게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화책 내용은 제작에 참여한 여성장애인들이 자신 또는 자녀나 이웃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으며, 지역사회 재능나눔 일환으로 도내 초등학교 등에 동화책 400세트(2권 1세트)를 배포했다.

### 일도2동 주민센터 나눔 실천



일도2동 주민센터(동장 고대익)는 지난달 아동복지시설 제일지역아동센터(시설장 박영식)를 방문해 온풍기 2대 및 피자, 치킨, 굴 등 간식 등을 전달했으며, 2~4층까지 계단청소 및 욕상에 있는 낡은 의자 등을 수리해주는 등 나눔을 실천했다.

### 소/식/마/당

#### 새해 맞이 자활해오름식 가져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센터장 임철남)는 2015년 새해를 맞아 자활해오름식을 지난달 9일 가졌다.

자활해오름식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이 희망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희망 돼지저금통을 배부하고, 안정적인 가계경제를 위한 금융, 재무교육을 실시했다.

#### 도민대상 가족교육 및 강좌 열어



제주연강병원(이사장 강지언)은 지난달 22일 병원 내 회의실에서 정신과 전문의 신윤식 과장을 모시고 강박증에 대한 도민강좌를 열었다.

오는 26일에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관련해 정신과전문의 김선영 과장이 강의한다. 전화로 미리 강좌를 신청한 경우 교육이수증도 발급해 준다. <문의: 정신보건사회복지팀 726-7900>

#### 일배움터,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일배움터(원장 최영열)는 지난 1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4 일자리창출지원 유공자 정부포상'에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일배움터는 장애인직업재활을 위해 장애인일자리창출,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의지를 더욱 북돋아 장애인의 정상화, 사회통합 등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 기아자동차 장애인시설 기프트카 증정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제주 애덕의집(원장 현성훈)은 지난해 12월 (주)기아자동차에 기프트카를 전달받았다.

이번 전달식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다양한 후원활동을 주관하는 기아자동차 '노사합동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기프트카를 받게 된 '제주애덕의집'은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기아자동차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행복더하기 사례집' 발간



제주시는 2014년도 수행한 통합사례관리업무의 내용이 담긴 네 번째 사례집인 '행복더하기'를 발행했다. 2011년도에 발간한 이래 네 번째로 발행된 이번 사례집은 '희망복지지원단 및 우수사례 소개', '통합사례관리사들의 후기', '감사편지'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사례집은 각 읍·면·동주민센터와 보건소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 '세상디딤, 꿈드림' 프로그램 운영



가롤로의 집(원장 김정숙)은 올해 동안 거주시설 장애인의 직장 고용유지 및 확대를 위한 통합심리지원 프로그램인 '세상디딤, 꿈드림' 사업을 실시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1년 동안 진행되는 이 사업은 직장생활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본인 이용인 2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 렛츠런파크제주, 기부금 전달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렛츠런파크제주(제주지역본부장 이수길)는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의 '두바퀴로 가는 세상&예술in 표현up!!' 프로젝트에 498만원을 기부했다.

이 사업은 올 상반기까지 진행하며, 중증장애인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보장구 구입 및 자기표현력 향상을 위한 예술 활동을 진행한다.

### 중증발달장애인도 직업가질 수 있어요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오는 2월부터 도내 중증발달장애인의 보호작업장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적응훈련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이 직업으로 이어져 일반사업체로 전이하기까지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참여를 원하는 중증발달장애인은 783-992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에티오피아 장애인 지원 평가보고회 가져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동한 이사장 후원사업



국제개발NGO 지구촌나눔운동(이사장 서경석)은 지난 달 7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에티오피아 디라 지역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통합지원사업’ 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평가보고회는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동한 이사장 후원으로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에티오피아 디라에서 진행한 장애인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지구촌나눔운동은 현지 장애인단체인 CSE(Cheshire Service Ethiopia)와 협력해 디라 지역에서 장애아동 및 청소년 700여 명에게 활동보조기구, 가정방문 물리치료, 의료서비스, 학용품 등을 지원했으며, 극빈가정 80가구에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이번 사업의 교훈을 바탕으로 개도국 장애인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욕구 및 실태조사 진행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욕구 및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65세 미만 여성장애인 400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욕구 조사와 성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내용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참여촉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 ▲향후 참여를 위한 욕구 ▲모임참여에 관한

욕구 ▲여성장애인의 안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성에 대한 인식도 ▲성폭력 실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여 명의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2월 중순 경 나올 예정이다.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임태봉 관장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여성장애인성폭력 예방사업을 전개해 여성장애인이 행복한 복지·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폭력 피해 장애인보호시설 ‘그린터’ 개원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 인협회(회장 부형중)는 지난 달 7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다목적실에서

도내 여성복지시설장을 비롯한 도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그린터’ 개원식을 개최했다.

‘그린터’는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범죄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치료·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게 됐다.

시설 입소를 원하는 경우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T. 753-4980)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 소/식/마/당

#### ‘이랜드 행복한 초대’ 사회공헌활동 전개



(주)이랜드파크(대표이사 강성민)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2일간 이랜드파크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함께하는 2015년 제1차 ‘이랜드 행복한 초대’ 사업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랜드파크 직원자원봉사자들이 방학을 맞은 서귀포시 대정읍에 거주하는 요보호아동 32명을 켄싱턴리조트 서귀포점(총지배인 김광인)으로 초대하여 숲대 및 나무곤충만들기 등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 ‘따뜻한 연탄나눔’ 저소득 35가구 전달



제주시는 어려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지난 달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연탄나눔행사는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 시온복지회장, 청년제주, 제주의 소리 등 다수의 봉사단체가 참여했으며, 도내 저소득 35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500장에서 600장씩 총 2만장(1200만원 상당)의 연탄이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

####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조천읍센터 개소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주일)은 지난 11월 12일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천읍센터를 개소했다. 홍주일관장은 “조천읍센터는 조천읍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수혜 폭을 확장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천읍 센터는 지역주민을 위한 취미 프로그램 등 주민복지증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협약 체결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이성구)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성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회장 고은실)는 지난 달 26일 ‘제주에너지공사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주의 공공자원의 풍력으로 얻은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과 관련된 업무지원을 하게 된다.



시론

### 무병장수 만세



고수희  
평안전문요양원 원장

장수(長壽)는 예나 지금이나 인류의 꿈이다.

물론 인간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평균수명보다 건강수명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추세이고, 평균수명 80세를 넘긴 시대에 과연 몇 살까지 생존하는 것이 적정하며 몇 살부터를 장수로 볼 것인가 하는 논의가 계속 되고 있지만 말이다.

천만관객을 동원한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씨처럼 흥남철수, 독일 탄광사고, 베트남전쟁을 모두 경험할 정도로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며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둘러보면 우리 주위에도 파란

만장하게 살아온 어르신들이 적지 않다.

최근에, 장수마을로 알려진 곳들을 방문하여 87세에서 94세에 이르는 어르신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일제 강점기, 6·25전쟁, 4·3사건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겪었고, 남편이나 형제자매, 자녀 등 가족이 사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척박한 환경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근면성실하게 살아온 공통점이 있었다. 오랜 세월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마음을 지녔다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노후생활이 어렵고 불편하지 않으시냐는 질문에 현재 가진 게 없어도 혼자 남은 삶 뭐가 그리 많이 필요하겠나 하신다.

“젊을 때는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고 못 견디겠어서 죽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살기 좋은 시절

만났으니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세상 와서난 호꿈만 젊어져서민 하는 생각이다.

일만 일만 하며 지나온 세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 어느새 여든 일곱이나 먹어버렸나 싶다. 아직 움직일만하지만, 늙어서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아 찾아주는 사람 없어 돈벌이는 못해도 마음만은 젊다.

#### 늘 밝고 긍정적 마음 지녀야

하루일과라 해봐야 세끼 밥 먹고 하루 종일 강아지랑 다투는 것이 일이지만,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적막한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얼마나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되는지 모른다.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오래 살고 싶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어느 어르신의 이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 같다. 부정할 수 없는 건 이들의 노고로 인해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쓴 살 같은 시간, 누군가가 그랬다.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이라고.

기고

### 정부합동 복지 부정신고센터를 아십니까?



김미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통합관리담당

정부에서는 『정부합동 복지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에산100조원시대에 우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지사업 관련 부정수급과 편취, 횡령 등의 사례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국번 없이 110번만 누르면 신고상담에서 보호·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3년 10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괄운영하고 있다.

복지관련 부정신고를 110번으로 접수하면 합동신고센터

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신고대상은 4대사회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에 관한 부정수급 관련이나 국민기초수급, 교육, 의료 등 공적부조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있을 경우,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 복지시설 보조금등 편취, 횡령 등을 총 망라하여 신고 할 수 있다.

복지 부정신고센터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접수 처리한 결과 부정수급 혐의가 명백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 이첩·송부한 현황을 보면 170여건에 환수추정금액이 약33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사회 저변에 잠재된 고질적, 관행적인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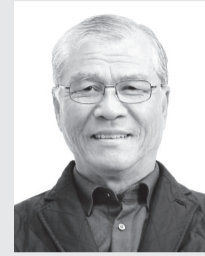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점검으로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자, 제주시에서도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자진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복지공동체 의식을 가져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주변에 관심을 갖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까운 읍·면·동으로 신고하고, 또한 복지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을 경우엔 국번없이 110번으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할 경우엔 지원중지는 물론 지원비용을 환수토록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일일 것이다.

칼럼

### 좋은 뜻



김길웅  
시인·수필가

“그냥 물이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사람의 배설물을 정화한 물을 마시며 심드렁하게 한 말이다. 정수 설비 옴니프로세서(omni processor)를 통

과하면서 5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배설물이 섞인 오물이었는데, 그새 그냥 물로 정화된 것이다.

세계 부자 1위인 빌 게이츠, 재산이 무려 860만 달러(한화로 89조원)다. 그런 그가 기분이 역겨운 물을 마신 데는 이유가 있다. 정수시설이 부족해 오물 섞인 물을 그대로 먹는 저개발국 국민들을 위해 만든 것. 25억의 사람들이 그런 물에 노출돼 있어 70만 명 어린이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을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다. 게이츠재단은 올해 말 아프리카 세네갈에 대규모 정수공장을 세울 계획이라 한다.

#### 마음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법

“포탄은 대포를 떠난 후에야 그 소리가 귀에 들린다. 마찬가지로 나쁜 생각도 겉으로 나쁜 결과를 낳은 뒤에야 눈에 보이게 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생각에 좌우 된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그런 생각에서 탄생했다” 톨스토이의 말이다.

히틀러의 생각은 수천만을 희생시킨 대전을 일으켰고, 링컨의 생각은 노예해방의 길을 열었다. 생각은 뜻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사람이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 길이 갈리는 법이다.

수년 전, 좌우명을 써 붙이도록 했더니, 한 학생의 책상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내게 포기란 없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다” 배추를 소재로 한 시가 있다. ‘배추 한 포기 안아야 묶여 준다는 걸, 묶여야 속을 채워 오뎅 배추가 된다는 걸 안다는 건 마음을 준다는 것. 마음도 건성 말고 진정을 줘야 한다는 걸. 보듬듯이 배추를 묶으면서 쓸 곳이 너무 많았던 내 마음에 대해 생각한다’.

배추도 내 품에 안아야 묶이듯 사람도 매한 가지다. 건성으로, 형식으로만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마음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에게 내가 묶었다면 그건 나를 안았다는 것. 안아 주고, 안기면서 그렇게 서로 마음을 주는 게 삶이다.

아는 문인 중에 늘 ‘그렇군요’라 말하는 이가 있다. 칠순을 바라보는 국문과 교수이면서 문학평론가인 그분은 누가 무슨 말을 해오면 으레 그 말을 꺼낸다. “그렇군요”. 부정적인 뜻이 전혀 없다. 긍정과 배려의 언어, 수용의 화법이다. 결국 너그러운 마음이 좋은 뜻을 품는다.



○ 2015 제주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바뀐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20개 분야 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20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01~02. 사회복지분야**에서는 탈수급 유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단가 인상 등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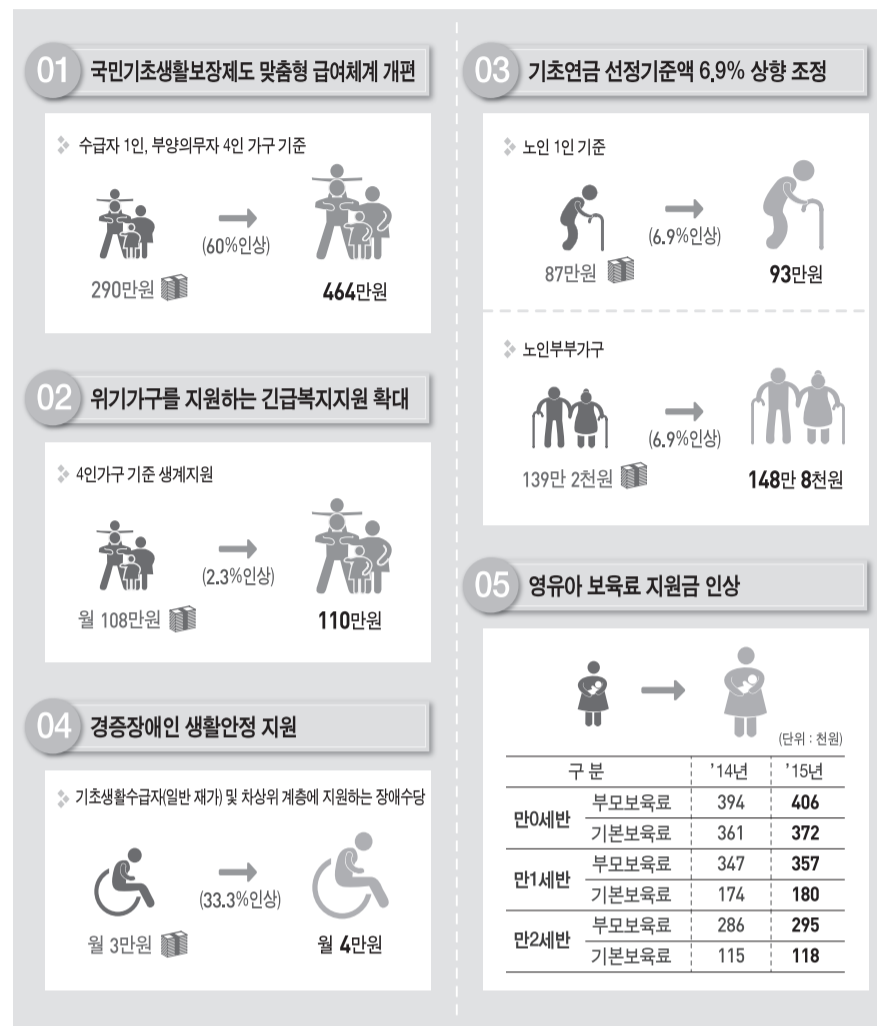
기존 단일체계였던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수준을 다층화 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기존 290만원(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 기준)에서 464만 원 이상일 때 부양능력을 인정해 소득기준을 현실화했다. 긴급지원 단가도 2.3% 인상해 월 108만원(4인 가구 기준)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했다.

**03. 노인분야**의 경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상향조정했으며,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및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등이 적용된다.

또 2015년 기초연금액은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8천원으로 선정기준액을 상향조정했으며, 연금액도 20만3천6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은 올해부터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편성해 활



동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지원했으며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월 109만 원에서 117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대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으며, 2012년부터 시행 중인 노인틀니 보험적용도 75세 이상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04. 장애인복지분야**에서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장애수당 급여인상, 장애인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등이 확충된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도 확대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현행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장애등급 1~2급 장애인에서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장

애등급 1~2급, 3급 중복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수당을 월 3만원서 4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운영된다. 이 시설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1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숙식 무료제공, 상담, 법률, 심리치료, 외상, 정신과, 산부인과 등 치료 지원,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동,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도 확충돼 한라병원 내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신설, 운영한다.

**05. 여성가족복지분야**에서는 보육료 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카드(아이즐거움카드)를 통합해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며,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부모지원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를 각각 3%씩 인상한다.

또 어린이집 0~2세반(영아반) 담임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및 보육업무 매진을 위해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를 지난해 월 15만원에서 월 17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 대하여도 월 7만5천원의 처우개선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행복기자단 • 5

## 시각·신장·지체장애 등 6개 유형별 볼링대회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볼링협회는 지난 12월 27일 펜코리아 볼링장에서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애 볼링대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볼링협회(양재근)는 지난 12월 27일 팬 코리아 볼링장에서 전도 장애인 볼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제주특별자치도볼링협회가 설립되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도협회 차원의 대회로써 장애인 볼러들의 환영을 받았다.

선수, 자원봉사자, 심판,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대회는 오전경기에 시각·신장·지체장애(휠체어부분) 경기가 열렸으며 오후는 청각·지적·지체장애(입식)순으로 경기가 진행됐다.

볼링선수 강현덕씨는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볼링대회에 참가하여 3위에 입상해 많이 기쁘

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경기는 4게임을 총점으로 1위 20만·2위 15만·3위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전달됐다.

볼링선수 M 씨는 "갑자기 대회요강을 만드느라고 다소 준비가 미흡한 점이 눈이 띄지만, 제주도 자체 대회가 개최돼 많은 볼러와 기량을 겨루게 돼서 즐거운 하루였다"는 소회를 밝혔다.

지적장애볼링선수 유진호(28)씨는 "탁구를 배우다가 볼링을 시작한지 1년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볼링 기술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즐겁고 이날 대회에서 3위를 하여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최홍호기자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21) - '아름다운 나눔 현장을 찾아서'

# “홀로 사는 어르신께 도움이 된다니 뿌듯해요”

## 제주중 트라이앵글봉사단 행복한 김치 나눔

겨울의 쌀쌀한 바람에 코끝이 시린 어느 날, 몽생이 기자단 2기는 제주중학교에서 따뜻한 사랑의 나눔이 진행된다 하여 제주중학교(교장 변종현)를 방문했다.

우리가 제주중학교 급식실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에 모여 김치를 담고 있는 분들은 제주중학교 학생 15명, 학부모 30여명, 교사 22명으로 구성된 트라이앵글 봉사단으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를 나눠 줌으로써 사랑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고 한다.

트라이앵글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운영하고자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 모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학교, 가정, 복지기관이 서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봉



▲몽생이 기자단 2기는 제주중학교 트라이앵글 봉사단의 김장김치 봉사 현장을 다녀왔다

사활동을 하고자 봉사단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 만들어진 김치는 모두 300포기, 그중 학교 내 저소득층 학생 50명 가정과 학교 인근 복지기관,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됐다.

몽생이기자단 2기도 따뜻한 나눔의 현장을 지나치지 못하고 함께 동참했다.

집에서는 엄마가 김장을 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였는데 직접 김치를 버무려보

### 김치통 하나씩 들고 복지관으로

니 '평소 엄마가 김치를 담그는 것이 매우 어려웠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며 '앞으로 김장을 할 때 꼭 도와드려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됐다.

한포기 한포기 정성스레 버무리고 김치통에 하나씩 가득 차 나가는 것을 보면서 많다고 느꼈던 300포기의 양도 다같이 힘을 합쳐 진행하니 금방 할 수 있어서

함께한다는 것의 위대함을 보게 됐다.

포장 된 김치통을 하나씩 들고 학교 근처의 사회복지기관으로 배달까지 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양일지는 몰라도 도움을 주는 손길들에 감사함을 표하는 모습들에서 따스함이 느껴졌다.

작은 나눔이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나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추운 겨울 작은 나눔일지라도 그 나눔이 우리의 날씨와 같이 차가워진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 겨울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중한 나눔을 찾아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자는 다짐을 해 본다.



※ 이 영상물은 위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사회복지신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17

## 행복을 지켜라! 행복지킴이 통장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된 A씨(남, 50대)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노숙인으로 살아오다가 작년부터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지난 아픔을 잊고 마음을 잡아가다 보니 주변에서 많은 도움도 주고 다시 일어설 희망이 보이는 것도 같았다. 특히 기

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게 되면서 본인 이름으로 통장도 만들고 다시금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뻐다.

그러던 어느 날 약간의 돈을 찾아 쓸 일이 있어 은행에 갔던 A씨는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어 예금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오래전 채무에 대해 채권자들이 재판을 거쳐 A씨 명의의 통장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 놓은 것이었다.

A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정부로부터 받는 수급금은 압류금지채

권이기에 때문에 이 금액이 입금된 통장은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 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직접 청구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압류 해제를 통해 당장 급한 불을 끈 경우에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압류방지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이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한 후 기초생활수급비의 수령계좌를 이 계좌로 변경하면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에도 A씨 명의의 이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여 A씨는 수급비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6월부턴 시행한 제도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가 불가능한 전용통장의 이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급여통장이 다른 금융권과 뒤섞이게 되어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현재 기초연금, 장애인급여, 한부모가족 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되고 있다.

#### ◆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각 은행별로 '은행명' + '행복지킴이통장' 식으로 표시되는데 통장 첫 페이지의

'압류방지전용통장' 문구로 확인하면 된다.

이 통장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하고 은행이나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제한된다. 출금에는 제한이 없으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는 (가)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 등 일체행위가 제한되고 타인으로부터의 양도, 타인에게서 양수하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 ◆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행복지킴이 통장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은행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고, 읍·면·동사무소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된다.